

圖書館에 책이 없다

—「국·공립」藏書 평균 2만 4천—

도서관의 가치를 규정하는 제1차적인 기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료의 량과 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각급 도서관의 경우 우선 장서수가 크게 부족하고 자료 확보대책도 미비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국립대학도서관은 장서보유율이 법정기준에 크게 미달, 서울대를 제외한 전대학이 평균 35.9%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大韓출판문화협회가 최근 1백40개 각급 도서관을 상대로 실시한 「도서관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82년도 문교통계연보는 81년말현재 국내 도서관수를 9백52개(국립중앙도서관 1, 국회도서관 1, 공공도서관 1백23, 대학도서관 3백96, 고등학교도서관 1백53, 중학교도서관 38, 국민학교도서관 49, 특수도서관 1백91), 총 장서수를 3천2백44만2천5백31권(도서실용 포함)으로 밝히고 있다. 出協은 이 가운데 5백78개도서관을 골라 설문지를 보냈으나 1백40개 도서관(공공 43, 대학 57, 특수 40)만 응답을 보내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43개 공공도서관의 경우 전체 장서수는 1백3만6천87권으로 평균 2만4천94권이며 57개대학도서관이 보유중인 도서는 모두 4백68만50권(국내도서 2백93만8천30, 외국 1백74만2천20권)으로 평균 8만2천1백5권이다. 그리고 40개 특수도서관도 85만8천5백42권으로 평균 2만1천4백63권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장서보유 기준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국립대학 도서관의 경우 서울대만 기준(1백20만9천5백20권)의 90.6%(1백9만6천78권)에 이르고 있을 뿐 江原·慶北·慶尙·釜山·全南·全北·濟州·忠南·忠北大등 9개 국립대학은 겨우 14.8~37%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江陵大·公州師大·群山大·木浦大·水產大·順天大·安東大·체육대·해양대등 10개 국립단과대학도 장서보유율이 평균 35.6%에 그치고 있다.

또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보면 연간 2억원이 넘는 곳은 7군데의 대학도서관뿐이고 1억~2억원 미만인 곳도 3개대학도서관에 불과했다. 5천만~1억원미만은 공공도서관 1개소, 대학도서관 8개소, 특수도서관 5개소였으며 1천만원 미만이 63개소(공

공 30, 대학 13, 특수 20)로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는 자료구입비가 연간 1백만원미만인 곳도 공공도서관이 7개소, 특수도서관이 4개소나 되었다.

외국대학교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자료구입비가 대학예산의 3.7~4.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8%에 지나지 않아 대학들이 도서관에 얼마나 인색한가를 짐작하게 한다.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당 도서관구입비는 4원20전으로 89원인 日本의 20분의 1, 4백70원인 美國 「워싱턴」주의 1백분의 1에 불과하다.

자료구입현황을 국내자료와 외국자료로 나누어 보면 대학도서관은 34대66, 특수도서관은 43대57로 오히려 외국자료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90대10으로 국내도서관비율이 높지만 예산규모가 적어 국내 출판계발전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각급 도서관들이 지난해 도서를 사들인 실제 금액을 보면 공공도서관이 3억6천여만원, 대학도서관 87억원, 특수도서관 7억5천만원등 모두 98억여원인데 이는 지난해 국내도서발행정가의 4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美國에는 현재 8만7천1백26개 도서관이 있고 장서수만도 14억1천6백63만8천권에 이르며 日本은 78년현재 1만2백17개(사설도서관 9천17개포함)도서관에 4천8백71만6천권을 보유하고 있다. 西獨도 공공도서관이 6천6백19개(79년말 현재)나 된다.

위대한 사회는 반드시 위대한 도서관을 갖는다고 한다. 이 말은 도서관이 사회적 산물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도 이제 도서관 발전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도서관구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거의가 기증·납본도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길사 金彦鎬사장은 『도서관은 문화창조의 산실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날로 새로워져 가는 학문 이론과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